

# 서론



은혜로 변화되는 경험의 노래

## 요한서신 서론

# 은혜로 변화되는 경험의 노래

신약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서신들이 세 개 있다. 이 세 서신은 요한복음 및 요한계시록과 함께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었다. 초기의 교부들에 의하면 요한문서로 간주되는 이 다섯 책 모두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소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알려졌다고 한다. 각 서신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역사적인 기록들의 상이성이나 저자에 관련된 비평학자들의 도전 등 문제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서신의 가치는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차치해 두고서도 폭넓게 발견된다. 즉, 요한서신은 그 기록자가 누구이고 연대기적인 묘사에 대한 역사비평적 관점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교 신앙과 실천에 중요성이 있는 문제들을 강렬한 형식으로 제시한다.

요한일서는 서신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서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는 서신의 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훨씬 더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른 두 서신과 구별된다. 만약 여기에서 신약성경의 서신들을 분류하여 논문조의 서신(epistles)과 사적인 편지(letter)로 나눈 '다이스만' (Diessmann)의 견해를 받아들여 그 분류에 따른다면 요한일서는 전자의 예가 되고,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는 후

자의 가장 분명한 예가 된다 하겠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사이에 나타나는 문구상의 현저한 유사성들의 일부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1:4)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24)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2:1)	“또 다른 보혜사[대언자]를 너희에게 주사” (14:16)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2:3)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15)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2:8)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3:34)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2:8)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1:9)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2:11)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12:35)
“영원히 거하느니라(2:17)	“영원히 거하나니” (8:35)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도되” (2: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15:23)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2:27)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14:26)
“우리가 서로 사랑할찌니” (3:11)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12)
“우리가 ...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 (3:1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5:24)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3:22)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8:29)
“진리의 영” (4:6)	“진리의 영” (14:17)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 (4:9)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3:16)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5:11)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1:4)

이와 같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사이에는 용어, 문체 및 사상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모두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어떤 사상을 드러낸다. 그리고 요한서신에 나타난 용어나 사상의 대부분이 요한복음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사랑, 생명, 진리, 빛, 아들, 영, 보혜사, 나타내다, 죄, 세상, 육체, 거짓말, 거하다, 알다, 증거하다’ 등이다.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공통으로 쓰인 많은 어구들은 그 특징이 더욱 분명하다. 예를 들어 ‘진리의 영, 진리를 행함, 죄를 갖고 있다, 죽음을 건너서 생명으로 가다, 하나님께로 가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정복하다, 세상의 구주’ 와 같은 구절들이다.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모두 관계대명사, 접속사의 생략과 지시대명사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문체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주제면에 있어서도 요한의 문서들은 공히 ‘하나님과의 연합’ 을 가르치며, ‘복종’ 과 ‘사랑’ 이라는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학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유사점들은 요한문서 전체가 동일한 저자의 기록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Brooke).

이 편지서는 한 통의 목회서신으로서 자연스럽게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에 관한 깊고도 오랜 명상의 결과로 나타난 책이라는 증거가 역력하다. 또한 편지서의 목적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복음서의 목적은 광범위하다. 비록 두 책의 목적과 길이의 차이가 커다란 상치점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 두 책의 주된 문제는 너무나 흡사하여, 마치 이 편지서가 복음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개요의 구실을 하는 듯하다.

## I. 역사적 배경

### 1. 저자 및 수신자

#### (1) 저자

요한일서는 베드로전서와 더불어 가장 일찍이 그 정경성을 인정받았다. 리용의 주교 '이레네우스' (Irenaeus)는 자신의 이단론에서 요한일서를 인용하면서 그것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이었다고 언명하였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Clement)도 요한일서를 빈번하게 인용하면서 그 서신의 저자로 사도 요한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대한 최초의 정경목록으로 알려진 무라토리 단편에도 요한복음에 이어 요한서신들의 사도 요한 저작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 외에도 '터툴리안' (Tertullian), '오리겐'(Origen), '키프리안' (Cyprian) 등 초대교회 교부들의 외증은 요한서신에 대한 요한 저작설을 증거해 준다. 하지만 요한서신도 신약성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반대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서신은 요한복음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본 서신도 기록하였다는 충분한 내증을 갖고 있다. 특히 그 공통점은 사상과 문체에서 고루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요 1:14; 요일 4:2),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것(요 5:26; 11:25; 요일 1:2), 빛과 어두움(요 12:35; 요일 2:9),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요 3:16; 요일 4:9)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이처럼 전승과 합리적인 가능성들을 결부시켜 보면 요한은 65-70년경 아시아의 에베소로 갔고, 95년경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도미티안' (Domitian) 박해시대에 밧모섬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97년경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요한서신을 남기고 그곳에서 죽었다는 추론이 성립된다.

## (2) 수신자

본 서신의 내용 중에 “나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혹은 “형제들이” 등의 호칭으로 보아 사도 요한이 말년에 전도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회람용으로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 2. 기록연대

### (1) 기록장소

사도 요한이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뒷받침해주는 사실로서 의심할 바 없이 요한복음 및 요한계시록의 기록장소와 동일하게 에베소에 그 출처를 둔다고 볼 수 있겠다.

### (2) 기록연대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는가? 아니면 편지서가 먼저 기록되었는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요한의 세 서신들의 연대가 거의 같은 때라는 사실 뿐이다. 전설에 따르면 요한은 트라얀 시대(98-117년)까지 생존했다고 하며(Irenaeus), 극히 노쇠한 요한이 청년들에게 부축되어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라’를 반복하여 설교했다고 한다(Jerome). 이러한 전설과 웅대한 사고력을 보여주었던 요한복음보다 요한서신이 사고력에서 뒤떨어지는 점을 볼 때 요한서신의 기록연대는 거의 말년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전통적인 학자들은 90-95년으로 추정한다.

## 3. 기록목적

### (1) 요한일서

요한일서의 기록목적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교회 안에 나타난 거

짓교사들을 경고하는 논쟁적인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적극적인 목적으로서 거짓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그의 영적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목회적인 목적이다. 당시의 교회의 형편은 거짓교사들이 일어나 미혹케 하는 이단으로 교회들을 흔들고 위협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일 2:26)고 하였다. 다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수신자들을 위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회적 관심을 보여준다. 즉 저자는 본 서신의 배경을 이루는 거짓교사들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을 보호하며 그들을 기독교 신앙과 생활 곧 진리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요한일서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록목적에 밝히는 언급에서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 (요일 1:4)이라고 하였고,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 (요일 2:1) 혹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요일 5:13)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요한일서의 기록목적은 소극적인 면에서 거짓교사들을 경고하고, 적극적인 면에서 성도의 기쁨과 성결과 확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 (2) 요한이서 및 요한삼서

요한이서의 기록목적도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거짓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저자는 거짓교사들을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요이 1:7)라고 부르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향해 거짓교사들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권면하였다. 그러므로 요한이서는 성육신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이단적인 선교운동을 배격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할 수 있다. 때때로 교회 지도자나 기독교인들은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요한이서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단호하게 ‘사랑의 한계’ (Love's limitation)

를 설정하였다. 즉 신앙에 위협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경우에는 사랑과 관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독교는 그들을 배격하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요한삼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요한이서가 공동체를 향한 권면인데 반해서 요한삼서는 개인에게 권면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즉 요한삼서는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혈투고 나그네 된 자들을 내쫓는 디오드레베와, 모든 형제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진리도 받아들이는 데메드리오를 대조시킴으로써 전자를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지도자로, 후자를 교회의 올바른 지도자 상으로 제시하였다.

#### 4. 주제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랑’ 과 ‘진리’ 이다. 그 중에서도 요한은 요일 1:1~4에서 사랑의 윤리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다루었다. “자녀들아” (요일 2:1,2), “아이들아” (요일 2:18), “형제들아” (요일 3:13) 등 애칭을 사용하는 것도 요한일서의 주제인 ‘사랑’ 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요한은 1세기 말엽에 모든 교회가 이교적인 영향을 받아 순수한 복음의 사랑을 잃었다고 통탄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호소한다. 사실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중에서 사랑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사랑의 서신’ 이란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인 형제들 사이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며,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책임 지워진다는 것이 요한의 생각이다. 따라서 요한은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실천문제를 다루게 된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 4:24),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일 1:5),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일 4:8,16)라는 세 가지가 그것이다.

복음서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명제는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정의는 진리를 추구하며 영생을 바라는 신앙인들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생활이념이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빛 가운데서 행함이 곧 의의 생활이라고 권면한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으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표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와 사랑을 생활화 하라고 권면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인 것이다.

요한이 세 번째로 제시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정의는 신약성경 중에서 하나님 계시의 극치를 말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이 본질에서 속성이 표출된다. 그러나 이 정의는 결코 형이상학적 철학원리가 아닌 실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안에 나타나신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세속사와 구속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의미인 것이다. 요한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체험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증거 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때문에 그가 제시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실재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체험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실제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누가 이 세상 재물들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7,18)라고 하였으며,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

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 4:20,21)고 하였다.

사랑에 관한 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일 4:8),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일 4:7),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요일 4:10,11)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사랑에 대한 강조 못지않게 ‘적그리스도’ (antichrist)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헤이스’ (Hayes)는 요한일서를 평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한일서는 바울서신만큼 개인적인 열정이 없으며, 강한 대립도, 변증법도 없다. 또 히브리서에 사용된 것과 같은 풍유적 표현(allegory)도 없고, 야고보서와 같은 실천적 윤리의 구체적인 교훈도 없고 베드로서나 유다서와 같은 격분도 없다. 하지만 요한일서는 거짓교사들의 거짓된 교리에 물든 초대교회에 대한 폭탄선언이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단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거짓교사들이 내부에서 일어나 믿음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요일 2:18,19). 비록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는 했으나 그들의 영향은 아직도 남아있어 계속적인 손상을 입히고자 위협하고 있었다. 요한은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의 기본교리들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의 미를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요한이 대항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단은 일종의 원시영지주의(Proto-Gnosticism)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그노시스(gnosis) 즉 거짓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 편지서에 나타난 강조점들로 미루어볼 때, 반대파는 영지주의의 두 가지 형태, 곧 가현설(Docetism)과 케린투스설(Cerinthianism)에서 온 것으로서 둘 다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한 이단을 제시한 사상들이다.

가현설은 성육신의 실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진 것처럼 나타났을(appeared) 따름이라고 가르쳤다.

두번째 이단은 요한의 동시대인들 중의 한 사람인 케린투스(Cerinthus)에게서 생겨난 것인데, 그는 애굽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 소아시아에서 가르치면서 유대화주의의 교훈들을 퍼뜨렸다. 케린투스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자연적으로 출생한 아들이었으며 예수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그의 몸 안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도로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단들의 창시자들과 지지자들을 요한은 생생한 표현으로 “적그리스도”(요일 2:18,22; 4:3)와 “거짓선지자”(요일 4:1)라고 묘사하였다. 이러한 오류들을 퇴치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안의 가시적인 인성의 실재, 즉 그분은 참으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과 신자들은 거짓 그노시스(gnosis)와는 반대가 되는 이참 지식(5:20)을 소유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의 논쟁들은 진정한 그리스도론, 즉 ‘완전한 하나님으신 예수’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고찰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성육신의 진리로 이끌어 갈 것이며,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보내진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세포마다 섬유질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것이다.

**\*부록(참고문헌 : “영원한 본체를 붙잡다” J.R. 즈커박사)**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인류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3~16)라고 시몬 베드로는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황금사슬이다.” (1기별, 244)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제1막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는 없지만 타락한 상태의 육신의 몸(body)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영국 성공회 감독인 J.A.트로빈슨-

“우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배워야 하고 혹은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여 왔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 할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화해시키는 사람을 등지고 증오와 모독의 가장 사악한 장소인 우리 인성의 중심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들어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육신(Kenosis-Immanuel)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은 우리의 타락한 인성, 죄로 물들고 죄의식에 젖은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되어진 마음과 영혼이 병든 우리의 인성을 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만일 인간이 구원 받으려면 전인적 인간이 그리스도에 의해 입혀진 바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취하지 않으신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거듭 반복한 교리이다. 이와 같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자신의 죄 있는 본성을 그분 스스로 취하셨다는 것이다.” -Thomas, F. Torrence-

## 1. 현대적 바벨론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 I. 어거스틴의 원죄론

“원죄는 우리가 아담의 아들과 딸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다는 사상이다. 이 교리는 선과 악간의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프리비는 이에 관하여 “이러한 견해 안에서는 연약성, 불완전함, 성향 등은 모두 죄가 된다. 개혁자들이 그들의 원죄의 교리를 예정설의 전제위에 세웠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고 중요한 요지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정설을 거절한 상태에서도 아직도 계속 원죄사상을 올바른 복음전도의 바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죄 없는 인성을 가지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가 태어나면서 유전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죄된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관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

#### 1. 죄의 정의

- \*罪: ① 不信(롬 14:23) “믿음으로 좇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② 不法(요일 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③ 不善(약 4:17)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④ 不義(요일 5: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 : “죄는 불법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

이다.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있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의 표준은 아주 광범위한 것이요,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다.

### [죄의 성경적 개념]

(1) 힘(세력)으로서의 죄와 행동들로서의 죄들

성경은 ① 시험의 능력으로서 단수로 나타난-죄

② 범법의 행동들로서 복수로 나타난-죄들에 관한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한다.

특별히 바울은 ① 그를 “잡아가는” (롬 7:23) “죄의 법”

② 그가 따로 분류한 “육체의 행위들” (갈 5:19~21, 딤후 3:3)을 구분한다.

바울은 “죄에 팔린” 사람에게 대한 분석에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 “육체의 욕심” (epithumian sarkos)(갈5:16,17)주로 “소욕” (lust)이라 번역, “죄의 권능” (dunamistes hamartias)(고전15:56)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충동하는 육체의 성향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단지 성향이며 아직 죄는 아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인 불순종의 성향은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 때 실제적인 죄로 된다.

### [정욕과 짓된 행동의 차이점]

야고보는 유혹이 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분석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4,15)

다시 말하자면 유혹의 근원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량” (요일 2:16)등은 광야에서 예수께서 시험 당하신 것들을 포함하여 유혹 받는 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단에 의하여 제시되고 일어나는 생각들과 감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가장 강한 자에게로 일어난다. 만약 그들이 이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고 증오함으로 거절하면 영혼은 그 죄에 감염되지 않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R&H, Mar. 27. 1888)

“유혹의 정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다. 어떤 사람도 죄 짓게 강요할 수 없다. 먼저 그가 동의해야 하며 정욕이 이성을 지배하거나 양심에 대항하여 죄악이 승리하기 전에 영혼은 먼저 짓된 행동을 계획해야 한다. 유혹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5증언, 177)

“그는 경험을 통하여 인류의 연약함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시험의 힘이 놓인 곳을 아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 받으셨으나 죄는 없었기 때문이다’ How?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대항하시므로 비록 그는 모든 인류의 정욕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순결하고 고상하지 못한 어떤 하나의 행동이라도 하게 만들려는 유혹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셨다.” (하늘에서, 155)

## 2. 죄 진자만 죄인이다

원죄설에 의하면 육체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되며 또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다. 원죄설은 천주교회가 왜 유아세례라는 것을 행하여 죄의 저주를 없애려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조와 관습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원죄설에 대해 가장 많이 쓰이는 롬 5:12 “모든 사람이 죄를 지

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는 말은 인간이 태어나면 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게다가 바울은 이것을 모세시대에 적용하면서 인류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죄(guilt)가 유전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오직 죄진자만 죄인이 된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 24:16; 왕하 14:6).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겔 18:20)

각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죄인이 된다. 비록 시편기자의 말처럼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 하였을지라도 내가 나의 조상들로 인하여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롬 9:11에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분명히 그들도 유전에 의하여 아담의 죄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 죄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본성으로도 또한 유전적으로도 죄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처럼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아래 난”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부모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부모로부터 오는 유전과 본으로 인하여 아들들은 아비의 죄에 참여하게 된다. 잘못된 성향, 비뚤어진 식욕, 타락된 도덕성과 또한 육체적 병과 연약함은 부모로부터 아들에게 삼사대까지 상속된다.” (부조와 선지자 306)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물려받은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성향이며 죄의 결과인 죽음이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뱀의 독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인성 안에 주입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백신을 공급하셨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5:17~19)

## 죄는 본성인가? 아니면 죄는 선택인가?

(Sin as nature? Sin as choice?)

###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죄의 책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들이 조상들의 죄의 책임(guilt)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약해지고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었

다.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떠맡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 즉 죄로 인해서 도덕적 정신적으로 연약해진 육체를 물려받았던 것이지 아담이 범죄한 죄 자체를 전수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원죄(original sin)라는 것은 전혀 성서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아버가 신 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은 아니” (겔 18:2)라는 말이다.

아담의 후손들의 죽음은 아담의 죄로 인해 받게 되는 형벌이 아니다. 그들은 유전법칙에 따라 죽을 수 밖에 없는 본성(Mortal Nature)을 전수 받았기 때문에 죽는다.

사단은 유혹은 할 수 있으나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우리의 의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더럽힐 수는 없다.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그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그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할 때마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비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Ⅱ. 동정녀 마리아의 무염시대설

오류의 본거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거짓된 오류로서 ‘예수의 인성은 우리와 다르다’ 는 가르침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하였을 순간부터 원죄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도 다른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이론이다.(개신교회들은 이와 반대로 어거스틴의 원죄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설을 기반으로 그리스도론을 구축하였다.)

예수의 죄 있는 육신으로부터 이렇게 격리한 결과 때문에 로마의 사제 제도가 설립되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와 죄인사이를 중재할 어떤 사람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을 취하셨다고 하는 신조를 ‘반역하는 것’ 이라 부른다.

\*[1913년 제2기 안식일 학교 교과 발췌문]은 이러한 {카톨릭의 인용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주석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 ① “그리스도와 죄 있는 육신과의 완전한 연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죄인을 그리스도와 접촉시키기 위하여 보조적인 중개자가 필요하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vicarius filliidei)
- ②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들과 동일한 육과 혈을 갖고 계신 것을 부인함으로 … 현대 바벨론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부인하며 그러면서도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위장한다. 이러한 것이 ‘불법의 비밀’ 이다.”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무염시대설과 원죄설을 반대하였다. 그 당시 재림

교회로 새로 개종된 어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타락한 인성을 가지시고도 죄 없이 사셨다고 가르친 선구자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다.

-엘렌 화이트에게 보내어진 여러 편지들의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

✓

[Q:질문]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도 비슷한 시험에 굴복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

[A:답변] 화이트부인은 "만약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으며 만약 그가 우리의 본성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이 시험받았던 것처럼 시험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약 그가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실 수 없다."(1기별, 408)

1. 하나님으로서 순종한 것인가? 사람으로 순종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종은 인간으로서의 승리와 순종이다. 우리 주의 인성에 대한 우리들의 그릇된 견해 때문에 우리들의 결론에는 잘못이 많다. 인간이 사단과 싸울 때 입을 수 없는 능력을 그분의 인성에 다 적용시킬 때 우리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MANUSCRIPT.1,1892).

-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지 못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릇된 견해 즉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 때문이다 (COL, 415).

2.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릇된 견해

1) "하나님께 대해 투덜대는 많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본성적 불완전함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잘못이 있음을 찾아내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요구하신다고 불평한다. 사단이 그 같은 불평을 하늘에서 한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다” (signs of the times, 1892.8.29.).

- 2) “죄의 능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약속이 있다” (내가 그를 알려하여, 302).
- 3)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질 것이 없다 (DA, 118).
- 4)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하여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의심과 불신과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면, 사단은 그들을 시험에 빠뜨려 정복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며, 따라서 그 믿음은 능력과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 (복음교역자, 161~2).

### 3. 대쟁투의 이슈

- 1) 그리스도는 인간이 쫓겨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

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다.(R&H Mar.9,1905)

- 2)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COL, 314)
- 3) “그리스도가 그 자신 위에 타락한 인간의 형체와 본성을 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순서가운데 있었다.” -영적선물, 115-
- 4) 엘렌 G. 화잇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은 구속주께서 타락한 아담의 (fallen adam)자리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영광의 왕께서는 자신이 타락한 인간(fallen humanity)으로 낮추시기로 제의하셨다 ... 그는 사람의 타락한 성정(man's fallen nature)을 취하실 것이었다” - 화잇의 견해로는 구원의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달려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토록 강조하신 것이다. -R&H 2.24,1874

#### 4. Watter Martin 사건

1950년대 초 미국내 여러 이단 종파에 관하여 책을 저술하는 개신교회 이단문제 전문가였던 월터.마틴이 재림교회에 도전해 왔다. 그는 대총회를 방문하여 지도자들을 만나서 말하기를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관하여 책을 쓰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의심이 가는 재림교회의 교리의 목록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하여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글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가 꼬집어 낸 교리는 재림교회

가 믿고 있는 성소기별, 하늘에서 십자가 이후에도 구속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과 특히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타락한, 쪼뻛 인성을 쓰시고 죄없는 생애를 사셨으므로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며 우리도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재림교회도 다른 “복음주의파 개신교회”로 함께 인정을 받으려면 성소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만일 이 교리를 수정하지 않으면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글을 쓰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그 당시 대총회장과 몇몇 신학자들이 재림교회의 교리 중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교리를 수정, 변경시키고 말았다.** 그리하여 1950년대 이후 우리 재림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종전의 가르침, 즉 재림교회가 정통 진리로 믿고 있던 종전의 가르침과 다른 교리가 퍼지게 되었다.

## 5. 교리에 관한 질문(Questions on Doctrine)

재림교회에서 편찬한 이 책은 개신교회 복음주의 대표자들이었던 반하우스(Donald Grey, Barnhouse)와 마틴과의 회의의 결과로 편찬되었다. 마틴과 반하우스는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취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입장에 관하여 반대하였으며 그들은 매우 공개적으로 선구자들의 사상을 오류적이고 이단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들로부터 성육신에 관한 질문이 던져졌다.

**[Q:질문]** "그리스도께서 ‘인자’ 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는 어떠한가? 또한 성육신에 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리스도론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어졌다. 주석은 엘렌 화잇의 글들을 기반으로 쓰

여 졌다. 재림교회 직원들은 “엘렌 화잇의 글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과 온전히 일치하고 있다” 는 사실을 증거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시며 쫓겨난 인간의 육체의 ‘형상’ (롬8:3)으로 오셨다” 는 사실, “우리의 쫓겨난 본성”, “타락한 본성”,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본성” 이라는 표현을 썼음도 부정하지 않았다.

[A:답변]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병약하셨고 우리 타락한 인성이 유전 받은 약점들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견디어 승리하셨다. 그가 모든 세상의 죄를 지신 것처럼 이러한 상태를 대신 지실 수 없겠는가? ✓연약성, 약점들, 허약함, 실패들이 우리가 우리의 쫓겨난 타락한 인성 안에서 견디어야 할 것들이다. 우리에게 이것들은 자연적이고 유전적이지만 그가 이것들을 지실 때에는 유전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리자로서 취하셨다. 그는 그의 완전하고 죄 없는 본성 안에서 이것들을 취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의 죄악을 지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도 대신 (Vicariously)지셨다” 고 말한다. 간략하게 다시 말하면 ✓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것은 그의 고유의 것 즉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취하시고 견디신 것들 즉 우리의 죄악의 짐과 우리 인성의 병약함과 연약함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취하시고 대신 겪으신 것들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의 새로운 이정표” 의 매력이다. [QOD]의 저자들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엘렌 화잇이 그녀의 글들 안에서 때로 사용하였던 쫓겨난, 타락한, 퇴락된 인성이라는 단어들을 이러한 개념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고 하였다. 이 책의 저자들은 부록에 엘렌 화잇으로부터 발췌된 66개의 인용구들을 ✓ “죄 없는 인성을 취하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 없는 인성” 이라는 소제를



붙여 분리하여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들은 물론 화잇의 글로부터 인용된 것들이 아니다.

## 6. 재림교회의 새로운 이정표

- 1)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하기 전 아담의 영적인 본성을 취하셨다. 즉 죄 없는 인성이다.
- 2) 그리스도께서는 짓된 인성의 단지 육체적인 결과만을 유전 받으셨다. 즉 그의 받으신 유전은 4000년 동안의 죄로 인하여 연약하여진 것이었다.
- 3)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과 아담이 받았던 시험의 차이점은 오직 환경과 상황적인 것이고 본성의 차이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 4)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지셨으나 실제로 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짓된 인간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짓된 본성에 참가하지 않으신 채로 지셨다.

마틴은 SDA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고 선언하였다. ‘재림교인은 가장 진실된 기독교인들이다’ 심지어 개신교회가 재림교회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바꾼 이유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초기의 잘못된 견해가 완전히 거절됨’에 따른 것이라 선언하였다. 재림교인들이 정식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열망에 도취되어 진리를 버리고 배도하였다.

그리하여 대총회의 공인을 받아 공개된 [SDA, QOD]은 여러 신학교들, 대학들, 공립도서관에 보급되었다. 수천 권이 성직자들과 비 재림교 신학교수들에게 보내졌다. 거의 140,000권이 출판되었고 그 책은 재림교회 안팎으로 큰 영향을 행사하였다. 이 책의 출판은 재림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이 즉각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책은 출판되자

마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 강렬히 일어나고 있다.

“신학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간단한 것을 미묘하게 만드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려 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간단함에 그들 자신의 어두운 이유를 옷 입혀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혼돈되게 만든다.” (Signs of the times, July 1,1896)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비라고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나쳐 버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사람에게는 풍부한 위안과 가르침이 된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확실한 이해가 없는 것은 그들이 따라 행하고 싶지 않은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성경 진리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연구하려는 지적인 힘에만 의존된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진실된 소망에 의하여 일어난다” (Counsels on sabbath school work,38)

## 7.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3가지 해석

### 1) 전통적 또는 역사적 그리스도론 (Post lapsarian)(타락후의 인성)

이 입장은 재림교회 안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화잇 부인이 생존하고 있을 당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던 입장이다. 이것은 Post lapsarian(아담의 타락후의 인성)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타락한 인성 즉 아담이 타락한 후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는 모든 인류의 것과 같았다고 간주한다. 이 육신은 육적인 육신이 아니라 유전의 법칙에 의한 죄에 대한 성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 예수께서 한번도 죄에 굴복하지 않으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리킨다. 비록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았으나” (히 4:15)그는 범죄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육체에 죄를 정하셨

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롬 8:3,4)

이 가르침은 지극히 성경적이지만 일반 기독교의 교리와는 반대된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종종 이단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다른 인류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들의 교회가 재림운동이 시작된 때부터 1950년대까지 한 세기동안 이러한 입장(Post lapsarian)을 지지했음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타락한 인성 안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신학자들은 새로운 그리스도론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 ✓2) 새 그리스도론(Pre lapsarian)(타락전의 인성)

예수께서 Pre lapsarian 즉 아담의 타락하기 전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주장. 실제로 “그 안에 죄가 없었으며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전 또는 후천적으로 습득된 죄는 없었다.” 는 가르침이다.

✓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셨다고 하여도 그는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쫓된 경향을 유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안으로부터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는 즉 “예수께서 어떤 것을 취하셨든지 간에 그것이 그의 본질적이거나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예수께서 취하신 모든 것, 그가 지신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벌이거나 짐이든지 질병이거나 인성의 연약함이든지 간에 모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Vicariously)취하시고 지신 것이다.”

“우리의 대리자로서 그는 우리의 쫓된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들을 우리의 대리자로서 그가 우리의 죄악을 지신 것처럼 지셨다.”

## 거절했던 교리가 다시 들어옴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성 즉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것 같은 인성을 가졌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천주교회 공의회는 성모 마리아에 의한 무염시태설을 만들게 되었다. 개신교회들은 이와 반대로 어거스틴의 원죄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설을 기반으로 그리스도론을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무염시태설이나 원죄설을 근거로 그리스도론을 세울 경우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는 달라야만 하였는데 그는 죄인도, 짓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실 때에 아담의 타락하기 전의 인성을 취하셨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다.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무염시태설과 원죄설을 반대하였다.

그 당시 재림교회로 새로 개종된 어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성을 가지시고도 죄 없이 사셨다” 고 가르친 선구자들의 가르침을 이해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엘렌 화이트에게 보내어진 여러 편지들이 ✓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도 비슷한 시험에 굴복 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화이트 부인은 “만약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으며 만약 그가 우리의 본성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이 시험받았던 것처럼 시험 받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실 수 없다” 고 설명하셨다.

✓ 새 그리스도론은 이러한 종교 암흑시대의 옛 기독교 사상으로 되돌아간 것이며 또한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거절한 신조로 돌아간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육체운동이 만든 불행한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이 운동도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타락하기 전의 인성을 취하셨고 그러므로 그는 에덴동산에 존재하였던 인성을 취하였다” 라고 가르쳤었다.

화이트 부인은 이 거룩한 육체교리를 반대하시고 이것을 ✓ “잘못된 교리들과 방법들” 로서 또한 “거짓말의 아버가 준비한 인간적 이론의 값싸고 비

참한 발명품”이라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 새 그리스도론의 지지자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것을 취하셨던지 간에 그것은 타고난 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명시한다. ✓ “예수께서 취하신 모든 것들, 그가 지신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한 짐이든지 형벌이든지 또는 우리 인성의 병이든지 연약함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대리적(Vicariously)으로 지시고 취하신 것이다”라 말하며 “엘렌 화잇이 경우에 따라서 짓된, 타락한, 그리고 저하된 인성을 언급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의미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화잇부인은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신 체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실제적으로 인성을 취하셨다.” 그리고 그 인성의 종류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남기지 않기 위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히2:14)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그는 인간 심지어는 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실 것이라고 선언되었다. “그는 몸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인성을 취하셨고 인성의 삶에 참여하셨다.” “그는 육체로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짓된 육신의 형상이 되셨다.”

### ✓3) 대체적인 입장(대안적 그리스도론)

대체적인 그리스도론은 가장 최근의 것이며 오늘날 가장 널리 퍼진 그리스도론이다. 이것은 교단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200명이 넘는 교회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준비한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조에 나타나 있다.

선구자들의 그리스도론에 화합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아담이 타락한 후의 인성을 취하셨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예수께서 “영광과 능력” 안에 오시지 않으셨으며 또한 아담의 죄 없는 본성 안에 오시지도 않았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4000년간의 인류의 퇴락으로 연약하여진 인성을 가진 종의 형태를 취하셨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이 뜻이 그리스도께서

“악한 성향”을 아담으로부터 유전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몸은 육체적인 퇴보의 영향아래 있었고 인간의 육체적 조직의 연약함을 물려받았지만 그는 타락한 인류와 관련된 악한 성향들은 유전 받지 않으셨다.

엘렌 화잇이 인용한 한 출처 즉 성공회 목사 헨리 멜빌로부터 빌려온 한 공식에 의존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아담으로부터 오직 “순수한 연약성”(Innocent infirmities)과 “배고픔, 고통, 연약함, 슬픔, 그리고 죽음 등과 같은 것들만” 유전 받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것들은 죄의 결과들이지만 이들은 짓 되지 않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하기 전과 후의 아담 모두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른 모든 타락한 인류들과는 달리 그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새 그리스도론과 동의한다.

“우리는 우리 구주의 인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말미암아 많은 실수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인간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가질 수 없는 능력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성의 완전함을 파괴하는 것이다.”

✓ 만약 타락전과 타락후의 인성을 혼합시킨 대체적인 그리스도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이 연구를 완성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중간적인 입장은 한쪽으로 타락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는 그리스도의 죄 없는 본성을 선언함으로 타락전의 입장의 오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체적인 그리스도론의 입장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원죄 교리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는 죄를 물려받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육체적인 연약성만 즉 “순수한 연약성”(the innocent infirmities)을 유전 받으셨다고 한다. “배고픔, 고통, 연약함, 슬픔, 그리고 죽음” 아래 있었으나 “죄에 대한 성향”과 “짓된 성향”은 없었다는 것이다.

✓ 이러한 결론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한 것이다.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를 “순수한 연약성”에서 구해내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 목적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내 지체속의 한 법” (롬7:23)인 내 안의 죄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젓된 육신의 모양” 안에 오셔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던 이유는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화잇 부인은 “그는 인성을, 그것의 연약성들과 그것의 경향들과 그것의 시험거리들을 지닌 채 취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 (히4:15)으셨다” (3기별, 132).고 말씀하심으로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젓된 본성을 제외한 순수한 연약성만 취하신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전되는 성향(inherent propensities)” 과 “악한 성향(evil propensities)”의 잘못된 해석의 문제도 있다.

성향(propensity)은 한 경향(tendency)이고 시험으로 구부러지는 유혹을 받으려하는 성질이다. 이러한 성향에 대항하여 저항하고 거부할 경우 이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유전적인 성향”은 시험에 굴복할 때만 “악한 성향”이 된다. 엘렌 화잇은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젓된 성향(타고난 유전적 성향이 유혹에 굴복할 때 젓된 성향이 됨)이 있는 인간으로서 나타내지 말라. 그는 둘째 아담이다. 첫째 아담은 순결하고, 죄 없고, 죄의 흔적도 없이 만들어졌다 ... 죄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은 불순종의 성향을 유전 받은 채로 태어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그는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나 그 안에 한 순간이라도 젓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물론 그는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유혹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 문이다.(히4:15)

✓젓된 성향(Evil tendency): 인간에게 유전된 악한 성향(선천적으로 타고

난 성향 )

✓악한 성향(Evil propensity): 죄를 범함으로 생긴 악한 성향(후천적으로 계발된 성향)

엘렌 화잇은 이 두 표현들을 확실히 구별하셨다.

화잇부인은 예수께서 “악한 성향(Evil propensity)은 절대로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통하여 일하는 인간에게 유전된 악한 성향(tendency)을 만나시고 그 영향아래 있었다” 고 하였다.

윌리엄 하이드는 “예수께서는 비록 타락한 인류의 연약함을 지셨으나 그는 인류의 tendency(경향)와 propensity(성향)가 evil propensity(죄를 범한 경향이 있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악한 성향)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는 인류의 연약함이 개인적인 죄가 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 비록 그는 죄로 시험 받으셨으나 죄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그 안에 악한 또는 쪼트된 성향(propensity)을 만들지 않았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조상들은 “순수한 연약성”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엘렌 화잇은 “그리스도께서 타락된 인성의 연약성을 취하셨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서만 그는 인간을 퇴락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구하실 수 있으셨다.”

“타락된 상태의 인성을 취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죄 안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무염시태설과 원죄의 오류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또한 현대적 바벨론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깨달아 우리 자신을 지켜 바벨론의 우상에서 멀리하는 경험인 것이다.

\*부록(참고문헌: “영원한 본체를 붙잡다” J.R.즈커박사)



## 5. 개요

### I. 서론, 1:1~4

- A.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친분을 선언함, 1:1~3a
- B. 편지를 쓰는 목적, 1:3b,4
  - 1.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귀를 격려하기 위하여, 1:3b
  - 2.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하여, 1:4

### II.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귀를 위한 요구사항들, 1:5~10

- A. 빛 가운데 행하라, 1:5~7
- B. 죄를 자백하라, 1:8~10

### III. 무죄한 생애에 대한 권면, 2:1~29

- A. 대언자이시며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2:1,2
- B.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함, 2:3~6
- C. 새 계명, 2:7~11
- D. 영적 자녀들에 대한 개인적 호소, 2:12~29
  - 1. 기록이유, 2:12~14
  - 2.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2:15~17
  - 3. 적그리스도들과 그의 이단들을 경계하라, 2:18~26
  - 4. 그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2:27~29

### IV.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대조, 3:1~3:24

- A.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 3:1~3:7
- B.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함, 3:8,9

- C.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함, 3:10~18
- D.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확증하심, 3:19~24

**V. 진리와 사랑과 믿음은 사귄에 필수적임, 4:1~5:12**

- A.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4:1~6
- B.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함, 4:7~21
- C. 믿음은 승리와 생명을 가져옴, 5:1~12

**VI. 결론, 5:13~21**

- A. 목적의 재천명, 5:13
- B. 무죄에 대한 권고, 5:14~17
- C.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라는 마지막 격려, 5:18~21